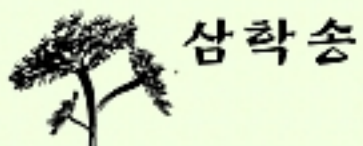


- 지면안내
- 02 2010 취업박람회 돌아보기
 - 03 우리대학 주변 맛집 맛보기
 - 04 대학생 저작권료 논란
 - 05 불법 반출된 고문헌과 반한 문화재
 - 07 문턱이 한단계 낮아진 고급문화



T.G.I.F시대 속 신문의 정체성

요즘은 T.G.I.F시대라고 한다. 트위터·구글·아이폰·페이스북이 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스타들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만천하에 속삭이고 일반인들은 그들의 트윗을 팔로이하며 그들의 사생활을 공유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인터넷에 올린 상품후기부터 자기소개서 심지어 개인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까지 검색되는 일명 '구글링(googleing)' 기능은 또 어떤가. 지하철·카페·학교 등 곳곳에서 터지는 와이파이 덕분에 우리는 어디서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적 감성을 고수하는 곳도 있다. 신문도 그 중 하나로 전통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매체다. 요즘은 신문도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신문 지면은 일명 '전통'이란 기준을 완벽히 지키려 노력한다. 내용은 물론이고 사진 크기부터 서체, 인명을 게재하는 순서까지 전부 옛 방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날로 변화하는 세상을 무시할 수 없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든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하는지, 트위터 계정을 열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한 취재원의 조언을 듣게 되었다. 그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한 건 배워야 하지만 남이 한다고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럼수록 자신의 색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문은 역시 이 편이 더 좋지 않은가. 현대화된 사회에서 고지식하던 비판을 받을까 모르지만 그래도 신문은 지금의 모습이 멋지다. 그래도 현실에 맞추는 태도로 변질되진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 기술이 신문에 필요한지 가려내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상미 편집국장

학생회비 예산회의, 예산안 인준은 17일 예정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공과대학 순으로 예산 비중 높아



하반기 학생회비 예산회의가 각 공개기구 및 단과대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각 단과 대표와 공개기구는 2학기에 진행할 사업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오는 17일 총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인준받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각각 축제를 기획중인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공과대학의 예산이 비중있게 책정됐다.

▲총학생회 및 공개기구
총학생회는 낙산제전과 등록금 협상, 우수 동아리 지원 및 동계 스키·보드 캠프 등의 공약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낙산제전은 종목별, 종합우수·준우수에 각각 상금을 지급하고 그 밖에 음향과 조명 및 무대 장치,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등에 예산을 사용해 약 600만원을 사용한다. 또한 등록금 협상을 위해 회계자료 분석 컨설팅을 의뢰할 예정이다. 총대의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

관위원회)와 리더십 세미나를 사업으로 준비했다. 2011년도 각 기구장 선거를 관리할 중선관위를 구성하는 데 약 100만원이 사용되며 리더십 세미나는 강사를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1·2차 대의원 총회도 각각 약 25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반기 예산을 인준할 1차 대의원 총회는 오는 17일에 열리며 2차 대의원 총회는 아직 미정이다.

동연은 동방미화컨테스트와 응비제를 하반기 대표사업으로 내걸어 상반기보다 다소 인성원 약 98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동방미화컨테스트에 대해 성수원(기계 3동연회장)은 "기존 동아리장이 폐적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 동아리실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업을 준비했다. 동연, 학생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로 특점 상위 5개 동아리에게 청소기를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응비제는 성북구민과 함께한다는 계획으로 가수 섭외비에 500만원, 무대 비용으로 7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직무적성검사를 대중 사업으로 발표했고, 졸업 기념품으로 디지털 탁상시계를 준비하고 있다. 졸준위는 "이력서의 스펙과 면접에 치중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직무적성검사를 미리 경험하도록 해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이라고 사업취지를 밝혔다. 이 사업에는 195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책정됐다.

학생복지위원회는 금연캠페인과 시험기간 간식배부를 실시한다. 운동기구 대여 및 플라보이드 사진기를 대여하는 상주사업, 씨네마 데이트 상반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단과대 학생회
인문대 학생회는 상반기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A.U Day 행사를 하반기에도 시행한다. 9월 12일까지 차례로 '인문대 리그',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할로윈 데이 이벤트', '크리스마스 카드 기부 이벤트'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 인문대는 등록금 인상반대와 관련해 등록금 관

련 내용을 리플렛으로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고수진(역사문화 3인문대 학생회장)은 "재단, 정이사체제 등 학교에 대한 내용을 일반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을 계획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사회과학대 홀파티, 우수 소모임 지원, 아시지원을 진행한다. 사회과학대 홀파티에는 초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200만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예수대 학생회는 2학기에 예대체전과 아시지원사업을 예년처럼 기획했다. 예수대 학생들의 단합을 위해 열리는 예대 체전에는 약 336만원이 책정됐다.

공과대 학생회는 공과대의 최대 행사인 공대체전으로 단과대 중 가장 많은 약 8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10월 초 진행 예정인 공대체전에는 675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그 밖에 게릴라성 이벤트, 소모임 지원, 셀프 인쇄소 등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깨끗한 공기 마실 권리 있다" 지난 7일 청의관 앞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금연선포식이 열렸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금연 현장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공공장소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직장에서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주장했다.

이정대 기자 dealee@hansung.ac.kr

우촌관 자유열람실 종전처럼 사용

우촌관 101호가 기존과 같이 일반 자유열람실로 13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개방한다. 그에 따라 우촌관 215호 여학생 휴게실과 214호 인문대 학생회실을 합친 공간에 고시반 열람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자유열람실로 바뀐 우촌관 608호는 열람실 대신 예비군실로 이용된다. 특히 우촌관 101호 자유열람실은 55석 중 15석을 고시반 전용 좌석으로 지정하자고 협의했으나 다시 조건 없이 종전처럼 일반 열람실로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장호철(경영 4총학생회장)은 "방중 사업으로 교내에 없을 때 발생한 일이라 문제를 다소 늦게 접했다"며 "학교 측과 만나 일반 학생과 고시반 학생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할 방안을 찾아냈다. 특히 고시반 학생들

도 모두 우리학교 학생이므로 공부하기 쾌적한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총학생회와 학교 측은 용도를 변경할 다른 공간을 찾았다. 여학생 휴게실은 흡연 및 취침 등으로 예전부터 사용 실태가 지적되어 온 장소다. 바로 옆에 있는 인문대 학생회실도 누수 등 시설문제가 있었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여학생 휴게실은 새벽에 남학생까지 출입하고 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1학기부터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자고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실제 여학생 휴게실은 여러 해 전부터 사용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같은 층에 있는 예비군실은 시설이 양호하며 일반 학생들의 왕

8시간마다 자리배석 갱신하도록 시스템 조정

래가 적은 곳이다. 이에 인문대 학생회실로 용도를 변경하고 예비군실은 우촌관 608호로 옮기자고 제안했고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여학생 휴게실과 인문대 학생회실을 터 만든 공간은 약 30석 규모의 고시반 전용 열람실로 개조된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보수 공사 및 내부 벽 공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 일시 등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학교 측에서 따로 공지할 것이다"고 전했다.

임재용(학술정보팀)팀장은 "고시반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 자유열람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뜻으로 협의했다. 시간·좌석 이용에 제한조건을 두면 일반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간에는 일반학생들의 이용률이 낮아 고시반 학생들이 공부하

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번 자리를 예약하면 갱신 없이 계속 쓸 수 있었던 열람실 좌석 배치 시스템도 새롭게 개선된다. 우촌관 열람실은 8시간마다 다시 예약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임재용 팀장은 "우촌관 열람실은 공부를 하며 자리배석 시스템까지 오가기 불편한 점을 고려해 8시간으로 정했다. 특히 자주 이동하지 않고 오래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특성이 있어 편의를 바꾸기 위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전형(취업·창업지원)팀장은 "외부인 출입에 대해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며 야간 이용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넓은 시각과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당신
당신의 아이디어를 펜을 통해 표현하고 싶다면
한성대신문사로 오라!

한성대신문사 35기 수습기자 모집요강

- 일시 : 9월 13일(월) ~ 9월 30일(목)
- 자격조건 : 우리학교 재학생 1·2학년
- 활동내용 : 한성대신문에 실릴 기사 취재 및 원고작성, 편집 과정 참여
- 혜택 : 기자 활동비 및 원고료 지급
-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이상미 편집국장 : 010-7124-5831



2010 한성 취업 박람회 열려

금융계열 참여 많아, 홍보 부족 아쉬워

지난 2일부터 3일, 양일간 낙산관 및 미래관 DLC에서 '2010 한성 취업 박람회'가 개최됐다.

올해 취업박람회 기업채용관에는 삼성생명, IBK 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20여개 국내 기업들이 초청돼 학생들의 면접 및 취업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지원인적성검사, 진로·입사서류클리닉, 면접부티컨설팅, 이력서용 무료사진 촬영관, 모의면접 체험관 등의 부대행사와 '2010 하반기 그룹공채 트렌드 및 대비 전략'에 대한 특강시간도 마련됐다. DLC에서 이루어진 이번 특강은 한국취업신문 김흥태 대표(前삼성엔지니어링 인사팀)의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학생이 강연에 참가했다.

오진형(취업·창업지원팀) 팀장은 "작년 취업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금융 기업을 많이 초청하

려 노력했다"며 기업 선정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태풍 때문에 오전 참여율이 저조했지만 오후에 학생들이 몰려 첫날에만 5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말했다. 또 "서울만 해도 많은 취업 박람회가 열리지만 그곳을 찾아다니며 원하는 정보를 얻는 학생은 소수다"며 "직접 취업 박람회를 찾아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번 기회를 마련했다"고 박람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진형 팀장은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스펙 때문에 취업 박람회에 오는데 꺼리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서를 한번 써보며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저학년 학생들도 취업이 자신에게 먼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목표의식

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 중 유명관(기계 4) 학생은 "혼자서 여러 기업을 알아보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한번에 여러 기업을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했다.

또 엄두식(경제 2) 학생은 "군 제대 후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평소 관심 있던 금융 쪽 기업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취업박람회의 홍보 부족과 작은 규모로 인해 다양한 기업군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승욱(의예 3) 학생은 "교수님의 추천으로 왔는데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의료 관련 기업이 적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취업·창업지원팀에서는 "학교의

공간이 부족해 행사의 규모에 한계가 있어 많은 기업을 초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홍보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9월말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과 주변 대학의 취업 박람회 기간이 겹쳐 기업 인사 직원의 초청에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최종 기업 선정이 늦어져 홍보가 늦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진형 팀장은 "각 학생들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교의 인적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각 학부에 적합한 기업은 교수와 학생들이 더 잘 아는 만큼 학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사 담당자를 초청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대 기자 dealee@hansung.ac.kr



학생식당 배식방법, '세트메뉴' 형식으로 바뀌어 선택의 폭이 좁아져 아쉽다는 평도...

2학기 개강을 맞은 지난달 31일, 개강에 맞추어 학생식당도 반찬과 밥을 골라 담아 먹는 기존의 '카페테리아' 형식에서 분식은 기존의 방식을 따르고 양식, 한식으로 나누는 '세트메뉴' 형식의 배식방법으로 새롭게 변경되었다.

이는 지난 학기 종강 전, 일주일동안 학생식당에서 열린 스티커 투표에서 카페테리아 형식보다 세트메뉴가 많은 득표를 한 결과이다. 김민주 점장은 "배식방법을 변경한 것은 학교 측과 학생대표, 일반 학생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배식방법 변경이유를 밝혔다. 양식, 한식, 전 종류 등의 서브메뉴로 이루어진 현재의 세트메뉴의 형식은 밥과 메인메뉴 두 가지, 일곱 가지 이상의 반찬, 사이드메뉴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카페테리아 형식과 편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기존의 학생식당의 풍경은 모두 줄을 서서 원하는 음식을 담아 그 자리에서 계산하

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매점에서 미리 식권을 구입해 세트로 된 음식을 가져와 먹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충민(경영 3) 학생은 "예전에는 먹고 싶은 것만 선별해 먹는 방식이었지만 메인메뉴만 골라먹었다"며 "세트메뉴로 된 것은 오히려 집밥"이라고 말했다. 또 박장현의 2학년 학생은 "학생식당을 많이 방문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방식은 각각 계산해서 먹는 방식이라 복잡했다"며 "세트메뉴를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트메뉴는 원하지 않는 반찬을 먹을 경우가 있어 잔반으로 남겨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민주 점장은 "1인식을 기준으로 배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량이 다소 적을 수도 있다. 필요할 때 리필을 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며 "적당량으로 배식하고 있어 기존의 잔반량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러한 식당의 배식방법 변경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도 있다. 김다슬(무용 3) 학생은 "기존의 카페테리아 방식은 입맛이 없거나 음식 양을 조절해야 할 때는 음식만 조금씩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지만 지금은 밥을 먹을 때 세트 전체를 구매해야 해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수지(무용 4) 학생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먹는 것이 양과 질을 생각할 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음식이 양식과 한식, 두 가지에 각각 하나의 메뉴로 정해져 있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이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김민주 점장은 "배식방법을 바꾼 것은 실험적인 시도라 할 것이므로 이후 학생들의 여론을 고려해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영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공학관 석면텍스 교체 공사 예정

공학관의 석면 함유 전장재로 조사된 텍스를 교체하는 공사가 오는 12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하계 방중 시설지원팀에서 교내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술관 외 모든 건물에서 석면이 부분적으로 검출됐다. 비교적 최근 건축된 미래관 등은 양호하나 6~7년 전 건축된 진리관 1층 등의 건물에는 석면 텍스가 사용되었다. 시설지원팀은 "석면 텍스 사용은 과거에 특별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에 전장재로 사용되었다. 특히 공학관은 우리 학교

에서 가장 구조가 복잡한데다 실험기구 때문에 까다로운 공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의 전체적인 석면 텍스 교체는 철거 전문 업체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공학관의 구체적인 공사 일정은 해당 학과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도영(시설지원팀) 팀장은 "계획하기 기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 2주 전 미리 공지하고 공사 중 사용할 강의실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9기 해외봉사단 사후보고회 진행

하계 방중 네팔 및 카자흐스탄 다녀와

9기 해외봉사단 사후보고회가 지난 2일 미래관 ELC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지 활동을 정리한 파워포인트발표와 영상 상영, 사진 전시 등의 행사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올해 하계 해외봉사단은 총 40명으로 구성된 김상현(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단장이 이끄는 네팔팀과 김용주(매선디자인전공 교수) 단장이 이끄는 카자흐스탄팀으로 나뉘어 각각 6월 26일부터 7월 11일,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활동했다.

봉사단의 주요활동은 교육봉사와 한국의 날 행사였으며, 봉사 이후 문

화탐방도 진행됐다.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에는 한국어와 영어 교육, 예체능을 비롯한 과학실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한국의 날 행사에는 부채춤과 태권무 등 한국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행사들로 채워졌다.

사후보고회에 참석한 정주택 총장은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인센트 큰 자장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성대 해외봉사단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네팔팀에 참가한 공성현(무역 3)학

생은 "가기 전에는 가진 것을 주러가 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녀와 보니 얻은 것이 더욱 많다"며 "두려워 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또한 한지수(멀티 3) 학생은 해외 봉사단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생각만 하다가는 결국 할 수 없다. 경험을 먼저 해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동계방중에 활동할 예정인 10기 해외봉사단원은 14일부터 16일까지 신청서를 통해 모집하며, 파견국가는 아직 미정이다.

공유국 기자 gong0930@hansung.ac.kr

교내 PC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업데이트

이번 학기 교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이유에 대해 김성길(정보화팀) 팀장은 "웹퍼스 라이선스의 일환으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연간 계약을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새로 업데이트된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OS 7', 'Microsoft Office 2010',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2010', Adobe사의 'Photoshop(Extended) CS5', 'Illustrator', 'After Effects CS5', 'Premiere Pro CS5', 'Flash, Dreamweaver CS5', 'Acrobat Pro 9.0' 등 총 10개다. 또한 학과별로 요

청받은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는 학과 사무실, 각종 실습실, 대어 노트북 등 교내 PC에 설치되어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학생의 개인 컴퓨터로 옮겨 설치하는 건 불가능하다.

김성길 팀장은 "2~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 예전과 달리 요즘은 매해마다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어 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한다. 포토샵, 드림위버 등의 프로그램은 특히 미디어학부 등 예대 학생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동정란

김백유(행정학과)교수
김 교수는 지난 8월 10일 경찰청 감사관 채용 면접시험에 인사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경찰청 감사관은 경찰청장과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며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경무관)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

전완식(에니메이션·제품디자인)교수
전 교수는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초대로 '스타워즈(Star Wars) 전을 광진교 교각 하부에 위치한 리버뷰 8번가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했다.

조세홍(멀티미디어공학과)교수
조 교수는 지난 8월 25일 마디브 푸마르 네팔 수상의 공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조 교수는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정책자문위원으로 국제학술대회(MITA2010)를 학술위원장(Program Committee Chair)으로서 성공적으로 주최해 네펫의 국제 IT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2010 제25회 한성문학상 현상 공모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모집부문: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5편 이상)

주제: 자유

마감일: 11월 10일(수)

발표일: 12월 6일(월)

수상자 발표와 수상작은 12월 6일에 발행하는 한성대신문 445호에 게재

상금: 단편소설 60만원 및 상패
시 40만원 및 상패

제출장소: 학생회관 제1별관(우편취급소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문의: 02)760-4186, press@hansung.ac.kr

기타: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고 곁봉에 한성문학상 응모작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필)

한성대신문사

한성대 앞 맛있는 길



▲ '윤가네'의 내부 모습



▲ '프리스타일'의 내부 모습

다양한 끼개와 밥맛만큼 특집한 한성대 앞의 맛

사람들의 입맛만큼 다양한 것이 있을까? 밥 먹을 시간만 되면 고민에 빠지는 한성인, 이제는 고민 없이 식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집에서 먹는 메뉴 그대로,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고 싶다면 '학사분식'을 찾아가보자. 대표메뉴로는 참치찌개, 순두부찌개, 계란찜, 제육파파, 잡채파파 등이 있다. 모든 메뉴는 3천500원에서 4천원선이다. 올해로 개업한지 7년째를 맞는 학사분식의 특징이라 한다면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식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니, 식사와 후식을 한자리에서 해결하고 싶은 학생은 이곳을 찾아보자.

올해 대학교에 들어온 10학번의 나이만큼 오래된 맛을 유지해온 식당이 있다. 1991년에 문을 연 콩피분식의 메뉴는 2천500원선에서 3천500원선이다. 인기메뉴는 부대찌개, 오징어달걀, 김치찌개 등이 있다. 밖에서 먹는 밥에 입맛이 떨어질 때 따뜻한 밥 한 숟갈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올 것이다.

비오는 날 짬뽕이 생각난다면 이곳을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학교 정문에서 내려오다보면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킨 승리장이 보인다. 현재 15주년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오직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자랑면 네 그릇에 만두까지, 만원으로 행복한 한끼를 먹어보자.

윤가네 김밥은 분식, 식사, 찜계류 등 메뉴가 매우 다양하다. 메뉴가 다양한 만큼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윤가네가 다른 식당과 차별화 되

는 점은 배달이 된다는 것이다. 학교 밖으로 나오기 싫다면 걸어갈 필요도 없이 전화 한통 후 앉아 기다리면 끝이다.

한아름은 '칼집' 좀 하고 싶은 날 가면 어떨까. 돈가스, 생선가스, 오므라이스 등이 메뉴에 있으며, 한아름의 대표메뉴는 폭발메인으로 특제소스와 함께 치즈가 올려져있다. 3500원선에서 4천500원선으로 돈가스 종류를 시키면 스프가 따라 나온다. 저렴한 가격으로 돈가스 코스를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영양가 많고 맛있는 분식이 끌린다던?

대한민국 사람치고 분식메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을 맛있는 분식집을 소개한다!

잘생긴 청년들이 친절한 미소로 맞아주는 죠스는 스트레스를 날려줄 매운맛이 그림자처럼 발걸음을 옮겨보자. 떡볶이 1인분에 2천원, 순대는 2천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어묵국물은 메뉴가 나오기 전 서비스로 나온다. 닭강정을 파는 컵장은 방학 중에 오픈했다. 떡과 감자볶이 함께 들어있다. 단일품목으로 컵 크기에 따라 1천원선에서 8천원선까지 가격이 다양하다. 아담한 가게를 친절한 주인 내외가 운영한다.

즉석 떡볶이가 끌린다면 요거프레소 맛은편에 위치한 떡고물을 가보자. 1인분에 2천원선에서 3천원선이며, 떡볶이를 먹은 후 밥을 볶아먹고 싶다면 1천300원으로 충분하다. 대표메뉴는 피자떡볶이이며, 고추장, 짜장, 크림 등 종류가 다양하다. 단무

지와 물은 셀프, 1만원 이상 주문시 음료수가 서비스로 제공된다.

작지만 학생들에게 살맛나는 여유를 주는 카페

한성인들은 커피나 차를 마시러 갈 때 어느 커피집을 주로 이용할까? 우리학교 앞에는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대형 전문점은 아니지만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카페들이 있다. 학교 중문에서 시작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피집을 찾아가 보자.

우촌관 앞 중문을 따라 가다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빨간 간판의 '올레'이다. 올레는 비교적 작고 아늑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내부에 테이블이 5개 있고 야외에 추가로 1개가 더 있다. 올레 주인아주머니는 "학생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메뉴는 아메리카노인데 여학생들은 바닐라라떼를 많이 마신다"고 말한다.

올레를 나오면 정면에 '요거프레소'가 보인다. 요거프레소는 장점은 비교적 넓은 공간이다. 테이블은 9개고 야외 테라스에 테이블이 추가로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곳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카페모카다. 요거프레소를 나와 갈림길에서 왼쪽을 향해 보면 '프리스타일'이란 가게가 보인다. 이곳은 가장 최근에 개업을 했는데 6개의 테이블이 있고 창가에 설치되어 있는 넷북을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라떼나 아메리카노 많이 마신다고 한다.

이제 프리스타일을 나와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커피&와플'이란 간판이 보인다. 이곳은 야외 테라스에 테이블이 3개로 가장 많고 내부에 4

개의 테이블이 있다. 가게 이름답게 아이스크림 와플이 인기 가장 많은데 와플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아메리카노도 많이 찾는 메뉴이다.

이제 다시 내려 오면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디야'가 보인다. 이곳은 6개의 내부 테이블과 1개의 외부 테이블이 있다. 인기 메뉴는 아메리카노와 플랫치노이다. 이곳은 다른 곳 보다 아메리카노가 400원 비싸지만 가게 오픈 때부터 오후 1시까지 아메리카노가 2천원으로 다른 곳과 동일하다.

우리학교 앞에는 대형 커피 전문점은 없지만 밥 보다 커피가 더 비싼 요즘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며 힐 수 있는 카페가 있다.

공유화 기자 gong0930@hansung.ac.kr
이정대 기자 dealee@hansung.ac.kr



▲ '죠스'의 내부 모습

교환학생 생생 정보통

뉴질랜드 행은 우연 속 숨어있던 큰 행운

-편집자 주-

한성대신문에서는 이번 학기동안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내오는 생생한 교환학생 수기를 실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441호에서는 뉴질랜드의 Unitec, 442호와 443호에서는 중국 북경의 화북전력대학, 444호와 445호에서는 미국 뉴욕의 Montclair State 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기가 차례로 실립니다.

교환학생으로 뉴질랜드에 오기 전, 저는 뉴질랜드에 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지낸지도 거의 7개월이 다 되는 요즘, 나를 뉴질랜드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인디언이나 호주의 아메리진(Aborigine)처럼 뉴질랜드에는 마오리족(Maori)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을 포용하는 뉴질랜드의 정치는 두 나라의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뉴질랜드의 국가(國歌)는 마오리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박물관이나 갤러리는 작품의 설명을 영어와 마오리어 두 가지 언어로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마오리족 특유의 문화, 언어, 생활양식 등을 고스란히 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뉴질랜드에는 마오리족과 뉴질랜드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유럽인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초기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때문에 뉴질랜드는 영국 식민지 당시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질랜드는 영국식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뉴질랜드 영어는 특유의 약센트가 있어서 영어를 알아듣기가 힘들다'였습니다. 뉴질랜드 영어는 분명 캐나다식 영어, 미국식 영어, 호주식 영어와 차이점이 있지만, 알아듣기 힘들 정도는 약센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교 교수들은 강한 억양이나 발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영어뿐만 아니라 음식, 도시 풍경 등도 영국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피쉬앤칩스(Fish and Chips)입니다. 피쉬앤칩스는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이주민의 영향으로, 뉴질랜드 남섬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더니든(Dunedin)은 스코틀랜드 식의 건축양식이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도시는 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는 반면, 숲 속 없이 많은 갤러리와 박물관으로 이루어진 도시도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번지점프, 스카이 다이빙, 크루즈, 천연 스키장 등 다양하고 독특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뉴질랜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뉴질랜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자연과 순박하고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뉴질랜드만의 독특한 문화 등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선화(한국어문 4)

한성 정보 홍신소

누가 거북이를 거기다 놓았을까?

Q. 탐구관 앞 거북이는 왜 있는 건가요?
김환중(무역 1) 학생의 질문
A. 거북이가 우리학교의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한번쯤 탐구관 앞에 있는 분수 속 거북이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거북이는 정문 앞에 있는 삼학송과 더불어 우리학교의 상징물이다. 거북이는 예로부터 심장생중 하나로 일컬어져 왔으며 기린, 봉황, 용과 더불어 4대 명물로 지칭되기도 할 만큼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거북이의 지혜와 영목성은 '진리'와 통하고, 구전되어 오는 대로 인간을 구원해 준다는 성품은 '선(善)'을 나타낸다. 때문에 우리 대학에 교훈인 진리·지선과 맞아떨어져 상징물이 되었다(한성대학교 30년사).

1984년 우리학교 UI의 육각형은 당시 미술학과장인 강국진 교수가



학교의 상징인 거북이의 등껍질은 본 따서 만든 것이다. 이것이 1991년 바뀐 UI에서는 대학의 율타리와 교수, 학생으로 의미가 변하여 이어져 왔고, 현재 개교 35주년을 기념으로 2007년에 UI가 바뀌면서 UI에서는 더 이상 거북이를 상징하는 육각형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거북이가 있는 장소는 2006년 까지만 해도 주차장으로

사용됐다. 당시 학생회에서 그곳을 녹지로 바꾸고 싶고 그곳을 녹지로 어떻게 조성할지 생각하던 중 한 졸업생이 학교 상징물인 거북이를 만들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2006년 말에 착공해서 2007년 초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학교에서 낙산관과 카페 테리아 앞 분수에 거북이를 상징하는 육각형이 남아 있다.

이정대 기자 dealee@hansung.ac.kr

2010년 향방기본 / 보충훈련 참석 안내 공지

- 1. 일시 : 2010년 9월 27일(월), 09:00~18:00(8H)
- 2. 장소 : 덕릉예비군교장(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당고개)
- 3. 훈련대상 : 한성대학교(원) 직장예비군 중 1~6년차 훈련 불참 및 미 이수자
- * 개인별 훈련 일자 및 시간 : 첨부파일 참조(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
- 4. 행정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규정된 예비군복장 착용(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및 비늘, 고무링)
 - 09:00까지 입소, 지각할시(09:30 이전 입소자) 추가교육 1시간
 - 09:30 이후 도착 시 입소불가하며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 됨
 - 문의전화 : 02-760-4176, 010-5075-6553(예비군대대 : 우촌관 208호)

/ 02-934-8764~5(덕릉예비군훈련장)

5 기타

- 대중교통 이용 시 : *전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33번, 33-1번, 10-5 번 시내버스 승차 당고개 덕릉예비군훈련장 하차 / 입소
- 자가 차량 이용 시 : 삼선교 ->마리리고개 ->드림랜드 ->당고개역 ->덕릉예비군훈련장
- 학교 수업출석 인정 등에 필요시 개인별 학교예비군대대(우촌관 208호, 전화 02-760-4176) 에 방문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 지참하여 훈련에 참가할 것

※ 훈련 무단 불참 시 불이익을 받으며 개인별 훈련일자 및 시간은 한성공직 첨부파일 에 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하여 참석바람.

※ 단 미처 전입신고를 미 실시한 대학(원)생 예비군대원은 한성대학교 예비군대대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학가 강의자료 저작권료 징수 고시

합법적 사용 발판 마련, 대학에는 부담으로 다가와

이제부터 학생들은 수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대학가 강의자료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고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고시가 시행되면 수업에 사용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학교가 지불하게 된다.

저작권료 납부방법은 두 가지다. 학내 저작물 이용방법을 일일이 조사해 사용량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는 개별이용방식과 정책금액을 납부하는 포괄이용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포괄이용방식은 학교 재정규모를 고려해 납부 상한액을 등록금 수입의 0.1% 이하로 제한된다. 또 학내 저작물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한 납부금액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학생 1인당 책정된 저작권료는 계속 협의 중인 상태에 있는데 현재는 3천580원으로 논의됐다. 이렇게 납부된 보상금은 대한복사권전송협회를 통해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된다.

이러한 고시가 추진 중인 배경에는 대학가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무단 복제를 막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문광부는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저작물을 이용해 온 현상을 시정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저작권법 25조 2항에는 '학교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사후에 보



▲ 영상물을 활용한 수업 현장의 모습이다. 전공 서적은 대학에서 가장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기준의 미비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처럼 '수입목적 이용 보상금제도'가 공식적으로 고시되면 먼저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는 자도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만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학생 수가 많은 대학들은 예상 납부액이 1억원 훌쩍 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료 징수를 담당하는 송재학(대한복사권전송협회)은 "대학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보상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하지 않도록 대학 측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저작물 제도는 엄격하게 징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 권리를 처리하는 단체가 있어 수업 전에 자료를 미리 제시해서 징수하고 있다. 또 호주 경우는 학생 1인당 4만2천원 정도로 책정되어 포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교육목적일 경우 일정부분 허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복제, 전송, 배포, 공연, 방송과 같이 모두를 허용하는 사례는 없고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보현(무용 4)학생은 "컨텐츠를 사용한다면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학교에서 저작권료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로 인해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무력

대고 찬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남궁영(지정 3)학생은 "현재는 저작권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고시가 시행된다면 결국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만 늘리는 제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고 우려를 나타냈다. 남승기(한국어문 2)학생은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 의 존하기 보다는 전공서적이나 중고 책 시장을 활발히 열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편이 더 나은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이번 주 열리는 저작권단체와 대학교육협의회 합의에 따라 고시될 전망이다. 대학 측은 2010학년도 저작권사용료에 대해 2011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가랑비에 옷 젖는 듯 은근한 디지털 중독



웹기획자로 일하는 유세균 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로 향하며 여객 저널, 아이패드 다운로드 받아 둔 팟캐스트 '박경철의 경제포커스'를 듣는다. 지하철에 도착하면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띄워 타임라인에 쌓인 트윗 중 중요한 트윗부터 읽기 시작한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두 개의 모니터에 지메일, 구글 캘린더, 구글 닥스, 구글 리더, 트윗을 띄운다. 또한 바로 구글 리더로 수집된 RSS 자료, 각종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읽는다.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있는 글은 퇴근 후 집에서 읽기 위해 RT나 관심글(북마크)로 저장해 둔다.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고 트위터에 올라온 최신 이슈를 가지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유세균 씨는 퇴근 후에도 블로그 포스팅을 하며 트윗을 하고 동시에 TV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 기기를 통해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블로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T.G.I.F(트위터·구글·아이폰·페이스북) 시대의 각종 디지털 장치들은 이미 인체의 일부라고 다름이 없다. 유 씨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은 여러 기기와 매개체를 이용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데 그런 추

세는 앞으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디지털 세상에도 함정이 있다. 디지털 중독, 디지털 치매, 디지털 강박 증 등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발생하는 정신적 중독 문제가 그 중 하나다. 가까운 사람의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고 휴대전화 단축키만 기억한다거나 가사 없이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몇 곡 없다는 것, 간단한 계산도 계산기를 찾는 것 등은 디지털 치매의 일반적인 예다. 이는 질병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젊은 연령대의 기억력 감퇴는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실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우려된다.

우리학교 생활상담소의 홍성미 상담사는 이 문제에 대해 "기계에 의존하는 게 생활화 되다보니 사용하지 않는 읽기 기능이 우리 몸에서 퇴화된다. 더불어 자연히 시각적인 부분이 강조되며 점점 자극적인 것만 찾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전 1000"만 봐도 예전엔 당연히 외우고 있던 가사를 완벽하게 소화해야 점수를 주는 준다. 디지털로 인한 기억력 감퇴의 모습 중 하나다"며 "정보를 기기에 입력하기보다 내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통계로 본 한국사회

개인정보 유출에서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상담건수만 하루에 1천300여건

인터넷 보급률에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81.2%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개인정보 침해도 심각해졌다. 2004년과 2009년에 소폭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10년간 개인정보의 침해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의 개인정보침해 상담원은 "일반적으로 해커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해커의 위협은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치명적이다.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뱅킹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이다."라 말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상담만 하루에 1천300여건이 될 정도

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피해의 종류로는 주민등록번호 타인의 정보도용과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타인의 정보 도용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러 형태로 악용된다. 주민번호 등 타인의 정보 도용으로 친구를 사칭해 메신저로 돈을 빌려 달라거나 광고소나 은행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또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에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판촉이나 고객 관리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리턴터키를 사용해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과 악성코드 등에 주의하여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보다 아이핀(II-PIN)을 활용하여 주민번호 노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지금은 이 세상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공

유 되고 있다고 할 만큼 고도의 정보화 시대이다. 그 정보의 바다 속에 당신의 개인정보가 떠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정대 기자 dealee@hansung.ac.kr

낙산반평

장미정(애니제품 4)

생활고 함병증 재발위험 기적의약

한성 튜터링 모집

신청기간 : 2010. 9. 10~9. 15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한성튜터링에서 신청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모집

신청기간 : 2010. 9. 10~9. 15
신청방법 : 교육개발연구원(우촌관 3층)으로 방문해 신청서 접수
문의처 : 교육개발연구원 760-5816

불법 반출된 고문헌과 반환문화재

조선왕실의궤 등의 귀중자료, 반환될 것으로 기대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월에는 간나토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랑스러운 역사도 아니지만 잊지도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중 일부인 경술국치를 여러 시각에서 알아보려 한다.

① 한일합방의 부당성 ② 불법 반출된 고문헌과 반환문화재 ③ 일제강점기의 피해 보상

일제 강점시대에 조선총독부의 직권으로 불법 반출해 간 고문헌들은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의 고문헌과 규장각(奎章閣)에 소장된 전례의 각종 의궤(儀軌)와 선원계보(線源系譜), 그리고 권수가 많은 정서류(政書類) 고문헌들이다. 그중 오대산 사고의 고문헌은 현재 일본 도쿄 제국대학부속도서관, 규장각에서 반출해간 자료들은 구나이초(宮內廳) 소부(書房)에 소장되어 있다.

고문헌을 포함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것은 한일합정이 1958년부터 시작되어서 1965년에 체결되기까지 다른 의제와 함께 거론되었다. 우리가 청구한 것은 고고미술품이 3천186점이고, 전적이 1천15점, 체신 관계 품목이 278점이었다. 청구한 4천479점 중, 1966년 5월 28일에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총 1천432점이었는데, 그중 고문헌은 163종 852책이었고 고문헌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마이크로필름은 238종 379롤이었다. 현재 이들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반환받은 고문헌 중 30종만이 귀중하다는 평가가 내려져서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6년 3월 3일 해문 스님을 중심으로 출범한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의 노력으로 2006년 7월 7일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은 국내로 돌아왔다. 비록 정식으로 반환 받지 못하고 도쿄대에 서울대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돌아와 모 일간지로부터 '실록을 기록한 사관의 정신은 돌아오지 못하고 종이와 먹물만 돌아왔

다'는 야박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확인되었으나 반환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는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었던, 귀중 문서들의 현 소장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실록 이외의 또 다른 문서들이 일본에 소장되어있음을 파악했다. 그 중 일본인에 의해 시해된 명성왕후의 2년 2개월에 걸친 장례절차를 기록한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는 붉은색 삼베로 묶인 현에 약 4월지 크기의 5권 5책이다. 소장처는 오대산 사고였고, 뒷장에 대정 11년(1922) 5월에 조선 총독부가 일본 국내청에 기증한다는 스탬프가 찍혀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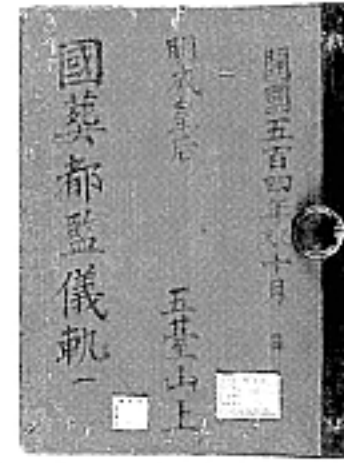
또한 이토오 히로부미가 규장각에서 대출한 도서가 아직까지 일본에서 반환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 자료는 현재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례의 각종 의궤(儀軌)와 선원계보(線源系譜), 그리고 거칠의 정서류(政書類) 고문헌들이다. 전 성균관대 천혜봉 교수들 중심으로 1차 조사하여 발표된 목록에서 의궤본은 77종 164권 115책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일본에서 발표된 것은 의궤본은 80종이고, 의궤 외의 자료는 38종 375책의 제실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들 자료에 대한 환수 노력이 매우 필요할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환수 과정을 살펴보면, 위의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는 반환운동에 성공했던 2006년 8월 이후에 해체하고, 다시 국내청에 있는 의궤를 환수한다는 목표로 '조선왕실 의궤 환수위원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간사인 해문스님을 중심으로 의궤환수를 위해 국내청 도서관에서 명성황후 국장도감 등 72종의 의궤를 직접 열람하고, 일본 국회를 방문해 외무차관을 면담하는 등 십여 차례 일본을 방문하였다. 또 프랑스 유네스코를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이 문제가 민족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동안 수차례 북경에서 회담한 끝에 2008년 8월 평양에서 의궤환수를 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마침내 2010년 8월 29일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약탈된 문화재를 돌려달라는 한국정부의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부의 반환을 비공식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아시아(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이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8월 10일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된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위의 담화문에 의하면, 일제 강점시대 불법 반출해간 정서류 의궤본은 77종 164권 115책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일본에서 발표된 것은 의궤본은 80종이고, 의궤 외의 자료는 38종 375책의 제실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들 자료에 대한 환수 노력이 매우 필요할 실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의 고문헌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에 소재한 한국 문화재는 250개소 6만1천409점이다. 덴리대 덴리도서관 5천711점, 오타나대 5천605점, 도쿄 국립국회도서관 지부 소장 동양문고 4천998점, 도쿄 국립박물관 4천895점, 공내정 서릉부



▲ 명성황후의 장례절차를 기록한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본, 현재 일본 국내청에 있다. 자료출처: 오마이뉴스

4천678점, 도쿄 국립국회도서관 1천750점 순이다. 하지만 이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가 일본에 사람을 파견하였지만, 부분적인 조사에 그쳐서 믿을만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외로 유출된 고문헌을 10만여 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면, 국외로 유출된 자료 중 60%가 일본에 있는 셈이다.

한동안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시대에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를 돌려주겠다고 한 담화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저런 기사들이 무성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의 관심 밖으로 떨어져 있다가 비슷한 사건이 있게 될 때,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가 그만둔다는 데 있다. 이번 일이 일부자료만 돌려받고 끝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환수 운동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고 국민들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국민과 민간단체, 국가의 관심이 하나가 될 때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은 우리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강순호(지식정보학부) 교수 · 인문과학연구원

동양화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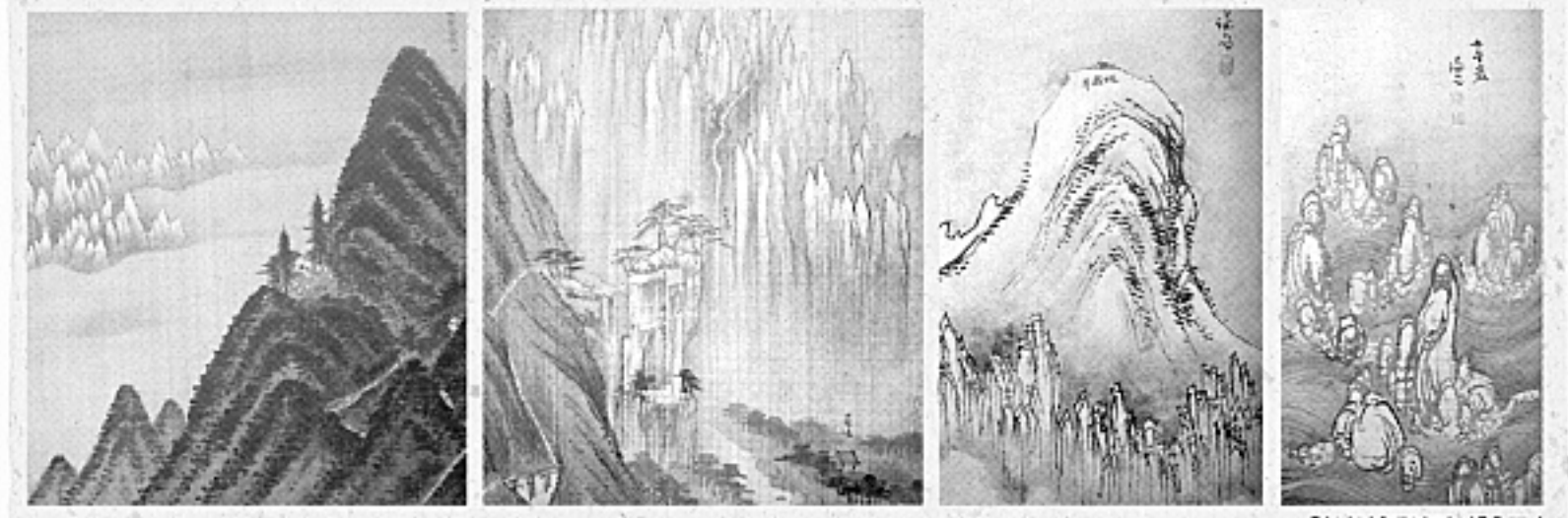
쓰다버린 붓을 모의면한 무덤을 이쪽만큼 그림에 평생을 바친 정선의 독창적인 화법세계



▲ 수직준법의 예 (그림1)

▲ 미점준법의 예 (그림2)

▲ 금강전도 | 국보 217호 | 지본담채 | 130.8 × 94.0cm | 삼성미술관 LEEUM(그림3)



▲ 단발령명금강 | 34.3 × 38.9cm (그림4)

▲ 불정대 | 37.4 × 34.5cm (그림5)

▲ 비로봉 | 지본수묵 | 34.8 × 25.5cm | 일암컬렉션 (그림6)

▲ 칠성암(해악전산)합중 | 지본담채 | 32.0 × 17.4cm | 간송미술관 (그림7)

결재와 이웃에 살면서 30여 년간 교류하였던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인 관아재(觀我齋) 조영석은 "결재 스스로 새로운 화법을 창출하여 그간의 병폐와 누습을 단번에 씻어버렸고, 그 결과 조선의 산수화법이 결재에서 비로소 새롭게 출발하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이야말로 결재 예술세계의 의의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산수화는 동양인에게 자연미와 예술미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그림이다. 이러한 산수화는 안으로는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밖으로는 자연 전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자연을 상징하는 산수화는 동양의 예술 문화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산수화는 화가의 정서와 자연의 체험을 통해 영원성과 보편성이 표현되어 성립되기 때문이다.

결재는 전통적인 필파계의 북종화법과 새로이 유입된 남종화법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법을 창안해 내는데, 이러한 화법을 토대로 우리나라 제일의 명승지인 금강산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빼어난 경치를 사생(寫生)하여 화폭에 담았다.

그는 뾰족한 암봉(巖峰)은 수직선을 길게 내리 긋는 수직준법(그림1) 일명 서릿발준법과 나무숲이 우거진 토산(土山)은 미점준법(그림2)을 구사하여 새로운 화풍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그의 화풍은 산에 바위가 많고,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우리 산악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실 준이라는 한자의 뜻은 '손등 갈라터질 준', '주름 잡힐 준'이지만, 그리고자하는 대상의

외형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뿐만 아니라 외형이면의 정신적인 세계의 표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정선은 평생 여러 차례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여 100여 폭에 이르는 금강산 그림을 그렸다.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부각법을 써서 구도를 잡고, 뾰족한 암봉은 강하고 활달한 수직준법으로, 좌측의 토산은 부드러운 미점준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동글고 부드러운 토산들과 뾰족하고 날카로운 암봉들이 강한 대조를 이루며 어우러지고 있다.(그림3)

또「단발령명금강」(그림4) 보면, 그림 오른쪽에는 토산과 미점준법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림 왼쪽 상단에는 무수히 늘어선 백색 화강암 봉우리들이 돋보인다.「불정대」(그림5) 또한 같은 맥락의 그림으로서 그만의 독특한 준법의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다.「비로봉」(그림6) 화면 하단에서 시작하여 위로 치솟은 봉우리와 주변경관을 생략하여 간략한 미점준을 구사하여 호방한 필치를 보여준다. 「칠성암」(그림7) 고성을 동쪽 10리 남강의 하구 가까운 바닷가에 있다고 한다. 오랜 세월 침식되어 하얀 노인의 머리처럼 보이는 바위 일곱개가 파도위로 늘어선 모습이 북두칠성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결재의 필묵은 무르익고 화의는 자유로워 대상의 사실적 형태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변형·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 그림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근우 / 중림대 강사

학술서평

'우리문화재 수난사' / 정규홍 / 학연문화사



조선시대 말기 문화가 개방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가 외국에서 해외로 약탈되었다. 특히 일본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파괴가 가장 심각했는데 이 책에서 그 아픈 역사를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일본의 무법적인 문화재 탈취나 고적조사라는 미명으로 이루어진 약탈을 보면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고 민족문화 말살이나 지역별로 우리 문화재가 약탈되고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일본의 치밀함에 더욱 놀라게 된다. 그들이 약탈한 문화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닌 고구려, 가야, 부여 등의 우리 역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의하여 자행된 문화재 약탈과 손실이 많은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문화재 수난사를 보고 문화재 환수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더 되짚어 보길 바란다.

이정대 기자 daelee@hansung.ac.kr

'위대한 유산 74434' / MBC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 제작팀 / 지식의숲



'74434'. 이 숫자의 의미를 아는가. 아직까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나라 문화재의 수이다. '위대한 유산 74434'는 2006년 4월부터 약 1년 1개월간 동명의 이름으로 MBC에서 방송된 바 있다. 한 때 하나의 불이던 문

화재 환수운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그 속에 존재하는 문화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위대한 유산들은 민족의 흥망성쇠와 함께해오며 조상들의 열과 혼을 담아왔다. 이 책은 우리가 부당하게 빼앗긴 위대한 유산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해외 유출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진정한 필요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책에서 말하듯 대한민국 역사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우선이다. 이 책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공유화 기자 gong0930@hansung.ac.kr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2010년도 2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적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0년 9월 13일(월) ~ 2010년 12월 10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논문, 서평 등
4. 신청 방법 :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 메뉴 이용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5.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상담 진행 방법

1. 상담 신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현황은 MY 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진행은 상담원과 학생 간에 면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상담 시간은 학생 1명 기준으로 30분~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5. 상담 신청자 유의사항
 - 1) 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의 신청 항목에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상담 전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미리 읽어야 합니다.
 - 3) 상담 시 과제 준비 과정과 준비한 글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사설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염도 자연의 흐름 속에선 어쩔 수 없는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 바람이 느껴진다. 가을은 늘 설렘으로 다가오지만 이번 가을이 특히 반가운 것은 유난했던 여름 날씨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번 여름에는 장마철보다 늦어짐에 더 많은 비가 오고, 거의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던 태풍이 강풍과 함께 수도권을 휩쓸고 지나갔다. 기상 이변이라는 제목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온과 재해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그저 먼 나라 이야기라니 했는데, 올 여름 날씨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직접 현실로 느끼게 해주었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산업화 과정 속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인류의 생활 방식이 끼친 영향이 떠오른다. 온실가스가 정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최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본다면 그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인다.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막으려는 인류의 노력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의식 없이 해 온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놀라울 뿐이다.

나비 효과라는 과학 이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소한 일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 오는 것은 비단 지구 온난화라는 거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 나비 효과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

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 이론으로,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 낸 원리이다. 이것은 날씨의 예측이 힘든 이유를 지구 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설명한 과학 원리이지만, 이는 기후 현상이라는 분야를 넘어서서 미세한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말해 준다.

대학 생활은 참으로 빠른 속도감을 보여준다. 개강인가 싶더니 어느덧 두 주가 지나가 버렸다. 이제 추석을 보내고 나서 중간고사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느껴질 것이다. 과제물이나 발표 준비, 시험 같은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지금 하는 일이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곤 한다. 그렇지만 자연의 법칙은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순간에서만 의미 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삶에서 꿈, 목표가 지니는 중요성은 세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지만 단순한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운동 경기에서 사소한 반칙 하나가 승패를 가르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꿈을 향해 가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가을 내 삶에서 일어날 찬란한 나비 효과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해 나가는 아름다운 한성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의 화정



황진수 교수 (행정학과)

“문제는 청년실업이야 이 바보야”

어느 나라 임금이 학자들을 모아 놓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책으로 만들어 보라고 당부했다. 학자들이 모여서 100권의 책을 만들어 임금에게 드렸다. 임금이 다시 1권의 책으로 줄여보라고 했다. 나중에 두꺼운 책 한권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많으니 단 한 줄로 줄여 달라고 했다. 그러면 백성이 살아가는 지혜의 단 한 줄은 무엇이였을까. ‘공짜 점심은 없다’ 였다고 한다. 그렇다. 세상만사가 다 거저 되는 것이 없다. 다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미국 대통령후보에 출마했을 때의 얘기다.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의 아버지 조지 부시가 이라크와 전쟁을 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기 때문에 이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 와중에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되어 경제 분위기가 많이 나빠졌다. 그 때 민주당 후보로 나선 빌 클린턴이 유권자를 향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라고 소리 친 것이다. 이 짤막한 선거구호가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여 그는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이제 우리는 빌 클린턴의 목소리를 패러디해서 “문제는 청년실업이야 이 바보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이

다. 최근 우리나라 비경제 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라는 보도가 있었다. 만 15세 이상 일할 능력이 있으나 일 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제활동 포기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인데, 지난 2월 기준 1623만 명(통계청)이라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3.3%로 서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비경제 활동인구 중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자, 구직활동 중단자, 구직 단념자는 모두 248만 명이고 여기에 통계상의 실업자 92만 명, 아르바이트, 임시·휴직자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실업자는 400만 명이다. 그러니까 실제 실업률은 3.3%가 아니라 1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대학진학률이 86%로 가장 높다 그래서 그 동안 ‘대학은 나와야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대학진학을 하게 되었고 특히 소 자녀시대(小子女時代)에는 자녀들의 수가 적으므로 대학교육을 시키는 것이 트렌드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는 대학 진학 후 졸업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만 취업

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 대학생들도 소위 3대 취업 스펙을 쌓느라 고생을 하고 있고 이미 배출된 졸업자들도 취업전선을 넘어야 하는 고용 방정식을 풀지 못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취업률(2010. 4월 기준)은 47.5%다. 지난해보다는 취업률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졸업생들은 아직도 허허벌판에 홀로 남겨진 채 있다. 갑갑한 발꿈에 등발도 없이 황야를 헤매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혹자는 ‘대학이 취업을 시키는 곳이나, 또 직업 훈련소냐’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대학이 인재 양성하는 곳이고, 인재는 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대학이 교육중심 대학이라고 하는데 인재를 만들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입생 때부터 취업진로상담, 진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교육해야 한다. 커리큘럼도 대폭 손보아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중심으로 뜯고교쳐야 할 것이다. 또 사회의 공공기관, 기업체, 유력한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공짜 점심을 먹지 않는 길이다.

독자투고-Hansung Success Frontier 후기

해외학술탐방으로 자신감 얻어

강민서 (행정 4)

Hansung Success Frontier(HSF)는 우리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해외학술탐방 프로그램으로 재학생이 직접 특정 주제 분야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유수의 해외기관과 직접 연락하여 방문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HSF의 공지를 본 후 지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탐방주제를 논의했다. 팀원과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 ‘도심 속 캠퍼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라는 주제를 정한 뒤 주제에 어울리는 탐방 목적지를 선정했다. 현지와는 지속적인 이메일을 통해 일정과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 구체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탐방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영어)을 통해 선정되는 기회를 거머쥐었다. 우리 팀은 도심 속에 위치한 대학이 캠퍼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3개 대학과 싱가포르 시청, 국립도서관을 방문했다.

실질적인 방문을 통해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시스템과 서가의 효율적인 공간사례, 학생들의 수강신청, 강의실환경, 사인 시스템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조사했다. 우리가 탐방한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의 캠퍼스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가 있었으며,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열정적인 작업과정과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HSF 학술탐방을 준비하는 동안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탐방의 주제이다. 현실적이면서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또 주제를 선정할 뒤에도 현지 일정이 변경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탐방주제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외탐방이 가능한지, 탐방결과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활동이 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짧은 기간 내에 사전조사 및 방문 기관과의 일정확정을 위해서는 마음이 맞는 팀원을 모집하여 팀을 구성해야 한다. 국내에서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현지에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양질의 정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HSF 프로그램을 통해 팀 구성부터 사후보고회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모든 선택을 참가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팀 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독립심과 팀워크를 배웠다. 또한 팀원들의 전공에 맞는 주제 선정과 탐방을 통해 개개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프로그램을 참가하여 전공과 관련된 실질적인 체험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수확이었다. 우리 한성인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여러분도 Hansung Success Frontier에 참여한다면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한줄맛글

우리학교 주변맛집 찾기

이번 한줄맛글 주제는 ‘우리학교 주변 맛집’입니다. 학교 근처 자주가는 식당의 이름 및 즐겨찾는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한어울 (한국어문 4)

☞ 카페 free style이요. 저번 학기에 공사하는 거 보고 이번 학기부터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가격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명이 가서 마셔도 다른 카페의 커피만한 가격에 나와요.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해서서 커피도 맛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갈 때마다 손님이 꽉 차 있더라고요. 추천해요~

전현경 (시각영상 3)

☞ ‘가정식 백반’이라는 곳이요. 이곳은 마치 우리 어머니가 아침을 거르고 간 딸이 걱정되어 밥상을 펴서 서비스로 보냈듯, 어머니의 손맛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반찬은 이곳의 자랑이고, 잦은 반찬 리필에도 빵긱 웃어주시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정과 맛이 있는 이곳.. 강력추천합니다!

‘한줄맛글’ 관련 게시물은 ‘낙신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처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번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41호 당첨자는 전현경(시각영상 3) 학생입니다.

교직원 인터뷰

취업률 높이는 데 밀알 같은 역할 하고파

우리 학교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해 힘쓰는 교직원들이었다. 이에 그들을 엿볼 기회가 되는 지면을 구성했다. 이번 호엔 우준관 3층 종합행정실에 근무하는 오진형(취업·창업지원팀) 팀장을 만났다.

학생지원팀에서 근무하다 3년 전부터 우준관 3층 종합 행정실 취업·창업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오진형 팀장은 교육훈련지원팀, 학생증 재발급, 고시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그가 하는 일은 학교행정에서 학생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는 “학년에 취업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취업에 성공해 감사하다며 찾아와 음료수를 건네준 졸업생들이 있었다”며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니 취업에 힘쓰고 있는 학생들을 더 열심히 이끌겠다는 힘이 생겼다”는 훈훈한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만큼 ‘교육훈련지원금’으로 인한 학생들과의 접촉이 잦다.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기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만 정해진 매뉴얼에 따르지 않아 미흡한 경우, 투명하지 않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출서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태도가 무례하게 돌변할 때가 있다”며

“학교는 작은 사회인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말을 함부로 하는 학생들을 볼 때 힘이 든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취업프로그램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저학년까지 확대해 다수의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이라며 “저학년부터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시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항상 기본 마음으로 일한다는 그는 “우리 학교 취업·창업지원팀은 학생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한성대학교가 취업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명문사학으로 우뚝 서게 되는 하나의 밑알로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웃음지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학에 와서 마음껏 노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무한경쟁시대라 성적관리, 스포, 봉사, 인턴체험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오진형 팀장 (취업·창업지원팀)

제1회 한성대학교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개최 안내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010년 4월 28일(수)에 개최된 창업지원단 발대식에 이어 창업지원단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1회 한성대학교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목적

- 가. 한성대학교 재학생들의 참신한 창업아이디어와 우수기술을 초기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결시켜 미래 청년기업가 양성
나.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준비자 발굴과 정보제공 등 성공적인 학생창업 모델을 제시하여 교내 창업분위기 확산 및 이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다. 한성대학교 캠퍼스를 성공창업의 요인으로 변화시켜 타대학교와의 차별화 기대

2. 참가대상 및 분야

- 가. 참가대상
재학중인 학부생으로서
1) 사업화가 가능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2) 정부기관 선정 아이템이나 외부 공모전/교내 공모전 무관해 입상한 아이템 제외
나. 참가분야
1) 기계·재료, 2) 전기·전자, 3) 정보·통신, 4) 환경·생물, 5) 생명·식품, 6) 환경·에너지, 7) 공예·디자인, 8) 기타

3. 행사 일정

Table with 3 columns: 일정, 내용, 비고. Rows include submission dates for various stages like idea submission, business plan submission, and final presentation.

4. 시상 및 창업지원내용

- 가. 시상내용
1) 최우수상(1개팀): 상장 및 장학금 200만원
2) 우수상(2개팀): 상장 및 장학금 각 100만원
3) 장려상(3개팀): 상장 및 장학금 각 50만원
※ 수상내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수상자 창업지원
1) 창업전문가의 지속적인 창업 상담 및 지도
2) 정부기관 주최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참가 지원
3) 2011년 중기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정부 지원자금) 신청 지도

* 접수 방법: 홈페이지(www.hansung.ac.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준관 산학협력단 613호로 직접 제출(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 산학협력단 창업전담관(Tel. 02-760-5860, bimanager@hansung.ac.kr)

취업기획 인터뷰

유병호(무역학과) 사회과학대학장 인터뷰

미래를 내다보고 현명하게 직업을 찾자

20년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특정 대 기업을 선호하고 안정적인 공무원 혹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까. 혹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혹은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진 않을까.

유병호(무역학과) 사회과학대학장은 "지금 인기 있는 일이 20~30년 뒤에는 사라진 직업이 될 지도 모른다.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이란 이유로 선택하는 많은 직업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인식하고 미래의 직장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며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었다.

삼성전자는 과거 7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계열 중 가장 인기가 없는 축에 속했다. 하지만 2010년 현재는 많은 대학생들이 꿈꾸는 직장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공

과대학은 예전에 가장 일결성적이 높은 곳 하나였으나 현재는 의과대학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보수적이며 변화가 별로 없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별 인기가 없었던 부처가 몇 십년 뒤에 각광받는 곳이 되는 일도 벌어진다.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며, 동시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유병호 학장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 '외국의 사회문제 사례를 연구하며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눈을 기르고, 시간을 두고 부모님, 선배,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며 답을 찾아보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1~2학년이라면 여러 가지 일을 접해보며 내가 좋아하며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데 힘쓰는 것

이 좋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 사회를 보는 시각을 기르며 스스로를 준비하기 위해 유병호 학장은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대 때는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 여유있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대는 사회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시기로 보고, 'Run How to run', 즉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배우고 경영할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란 유병호 학장의 생각이다. 짧은 날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도록 아껴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유병호 학장은 대학교 2학년 후반부터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사실 처음 몇 달은 밤마다 양심에 찔려 괴로웠다. 공부한다고 떠들기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진짜 공부'는 하루에 한 두시간 하는 등 마는 등했던 것 같아서다. 혹시 우리 학생들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 주었다. 유병호 학장은 "8~9달 뒤 결국 친구와 강원의 한 절간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루에 15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며 후입담도 들려주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막판사원으로 입사하면 사회에서 헿방아리일 뿐이지만 20~30년이 지나면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유능한 인물이 될 때가 올 것이다. 현재가 아니라 그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유병호 학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 보자.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기자수첩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되자

정기자가 되었다. 사실 전에는 딱히 하는 일 없이 논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안락하게 수습기자 생활을 했던 아름다운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아이템의 압박에 걱정이 앞섰다.

신문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지만 작은 기사 하나도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직 선배들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걸 어찌해야 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부터 생긴 것이 사실이다. 또 2주라는 시간은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지만 지난 호를 마치며 느낀 피로를 풀기에는 더 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이번 호에도 많은 인터뷰들과 외부 취재가 있었다. 그중 졸업생 홍윤미씨를 인터뷰 하면서 자신의 일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성대신문사 기자로서의 일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 많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어서 좋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번 신문에 나에게 힘들었던 점은 늘어난 취재 분량 때문이기도 했지만 쓰면 쓸수록

록 기사를 쓰는 게 어렵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호씩 넘어가면서 점점 기사를 쓰는 능력이나 취재하는 기술도 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다. 그리고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이 기사 괜찮은데"라는 말 한마디 해준다면 그것보다 기쁨은 없을 것 같다.

이번 기사들에 필요한 인터뷰를 하며 "아직 세상은 살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인터뷰를 해주셨다. 취재를 응해준 취재원들을 생각하며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 줄 수 있게 기사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여 쓸 것을 이번 기사 수습을 계기로 약속한다. 앞으로 변해가는 나의 기사를 주목해 주길 바란다.

"인생은 가까워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찰리 채플린이 말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먼 훗날 시간이 지나 볼거늘 추억으로 기억 될 날을 기대해 본다.



이정미 기자 dealee@hansung.ac.kr

자신에 대한 솔직한 태도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최승락(영어영문 99) 졸업생



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물론 좌절의 시기는 있었다. 그는 "학부 시절부터 영문기자의 꿈을 좇았지만 부득이하게 시험을 보러가지 못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해 대학원 전공을 살려 통역가로 꿈을 꾀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통역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신의 입을 통해 의사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는 점과 긴장감을 가지고 무대에 섰을 때의 짜릿함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직장인의 개념보다 프리랜서 실무의 성격이 강해 이직을 경우가 많지만 타 전문직보다는 자유로운 직업이라"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덧붙여 "현장은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되는데 그런 긴장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대학생들에 대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어학실력을 쌓을 때도 약점과 강점을 파악해 수치적인 스펙으로 가리려 하지 말고 약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아킬레스건을 조금씩 좁혀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꿈을 향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조언했다.

이예진 기자 odory1@hansung.ac.kr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말 것"

송성호(경제 05) 졸업생



최근 고용시장에는 활력이 돌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7월 통계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8.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기술을 살려 당당히 능력이 들어간 송성호 졸업생을 만나보았다. 2009년에 1월에 입사한 그는 현재 농업중앙회 안전시지부에서 계장으로 있으며 대부계일을 맡고 있다.

농협에 취직하게 된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쪽을 준비했었다. 여러 곳에 지원서를 넣으면서 농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추천과 여건을 따져 이곳에 들어가게 됐다"며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은행 쪽을 목표로 잡으면서 준비했던 것이 농협에 들어올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취업준비 과정을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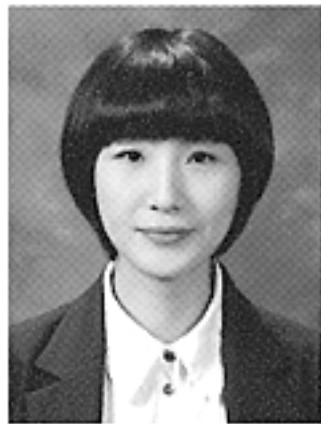
그는 농협의 장점에 대해 "신이 숨겨 놓은 직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무원같은 근로조건과 은행권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다른 은행보다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적어 자신의 능력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근면이나 성실한 등 인성이 더 큰 비중을 지닌다"며 "자신이 근무하며 느끼는 것이 많다는 말을 전했다."

송성호 졸업생은 농협의 근무특징에 대해 "금융권 중 유일하게 승진고시가 있다. 입사한 년도에 따라 승진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실력만 있다면 고속승진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과 다양한 계열 사업들

공유화 기자 gong0930@hansung.ac.kr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이 꿈을 이룬다

홍윤미(인테리어 04) 졸업생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얼마 없다. 특히 어렵게 부러워했던 꿈은 현실에 맞닥뜨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꿈을 이루어진다는 말을 현실에서 이론 홍윤미 졸업생을 만나보았다.

그는 우리학교 인테리어학과를 졸업하고 간성건축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은 설계와 시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시공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그들의 직업 대상은 주거공간, 공공공간 등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 기능에 맞게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는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전공수업은 기본 바탕이자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학교 수업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제 중심으로 치우친 수업보다는 좋은 건축물을 보고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건축중심의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지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말한다. 직업상 자신의 일은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팀을 짜서 일을 해야 하기 때

이정미 기자 dealee@hansung.ac.kr

"七顛八起, 그저 좋고 뿌듯합니다"

김상훈(정통 03) 졸업생



정보통신학부 03학번 김상훈 졸업생은 2010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합격했다. 2008년 겨울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턴에 합격하였으나, 인턴 종료 후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여 정직원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지원을 했고 마침내 합격이라는 기쁨을 안게 되었다. 전공과 부합하고 관심이 많던 분야라서 만족한다는 그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저 좋고 뿌듯했다. 더 이상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속이 후련했다"고 했다.

삼성전자 면접과 타 기업 인턴에 떨어지면서 자신감을 잃었다는 그는 "면접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면접스터도 하고 '안드로이드 교육 이수'를 하며 실질적인 스펙 쌓기를 위해 노력했다"며 전공을 살려 취업한 것에 대해 "학점이 좋은 편이어서 전공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취업난이 심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는 취업 후에도 항상 강조되는 것 같다"며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아하연 수를 가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휴학에 대해서는 "휴학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학기 중에 할 수 없는 공부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며 "나는 중간에 휴학을 통해 쉬어갈

장영경 기자 jyk0372@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9월 13일(월요일) ~ 9월 17일(금요일)

날짜	월 9/13	화 9/14	수 9/15	목 9/16	금 9/17
점심	참치김치찌개	돌솥제육비빔밥	닭곰탕	김치볶음밥&후라이	해물죽(3,000원)
간식	쌀밥	유부장국	쌀밥	유부장국	쌀밥
	진미채볶음	숙주나물무침	콩나물무침	해초무침	어묵볶음
	해초무침		매추리알조림	계란말이	무생채
	김치	깍두기	깍두기	김치	김치
		요구르트			
양식	돈까스정식	샌드위치+치킨까스+수제소시지	토미토스피케티	햄박스테이크+감자크로켓+볶음밥	햄볶음밥(2,500원)
	옥수수콘소프		마늘빵		유부장국
	브로콜리샐러드	크림스프	옥수수콘소프	후라이코스프	어묵볶음
	맛감자	천사채샐러드	마카로니샐러드	무살리샐러드	김치
	피클&단무지	피클&단무지	피크닉	피클&단무지	요구르트
카페 테리아	탕수육	해물파전	이채비빔만두	닭강정	뽕나잇드로그

※ 위 식단은 식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희 학생 식당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국내산 / 쇠고기: 호주산 / 닭정육: 미국산(닭갈비비용)을 사용합니다.

①①					②
				④	⑤
②		③			
	⑥			⑦⑧	⑨
	⑤	⑥			
		⑥			
⑦				⑨	

가 로 세 르

- ① 한일 합방을 경술년에 당한 나라의 수차례는 뜻으로 일컫는 말.
- ②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
- ③ 책이 되는 낱어 한 쌍. '부부', '쌍', '짝'으로 순화.
- ④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하여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 한성대신문에도 한성인들이 공급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취재에 알려 주는 한성 정보 000가 있다.
- ⑤ 사랑과 미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⑥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적음을 이르는 말. 00의 차이.
- ⑦ 고려가 아홉 개 달린 여우. 몹시 교활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특히 그런 여자를 이른다.
- ⑧ 강기에 참가한 모든 팀이 서로 한 번 이상 겨루어 가장 많이 이긴 팀이 우승하게 되는 경기를 벌이는 대전 방식의 하나.
- ⑨ 결승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할, 또는 그런 행동. '경망한 행동'으로 순화.
- ⑩ 통신망 따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는 사람.
- ⑪ 텔레비전이나 사진 전송에서, 화면을 전기적으로 분해한 최초의 단위 면적.
- ⑫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전기 간행물.
- ⑬ 사람에게 사랑을 구할, 약혼이나 결혼 전에 전통적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
- ⑭ 정하여진 기간 외에 더 내려서 나온 간행물.
- ⑮ 기초화장을 한 다음에 하는 색조 화장.
- ⑯ 강기에 참가한 모든 팀이 서로 한 번 이상 겨루어 가장 많이 이긴 팀이 우승하게 되는 경기를 벌이는 대전 방식의 하나.

정답지 발표
 김동영(경제 4) 010-xxxx-3673
 정여우(내지름 1) 010-xxxx-7011
 김기만(정치 1) 010-xxxx-5778

정답지에 한해 추천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지는 연례 후회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학과(학년) : 인력차
 이름: 인력차



▲ 지난 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현악과 라이브가 흐르는 밤' 공연.

문턱이 한 단계 낮아진 고급문화



▲ 지난 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크로스오버 콘서트'

아름다운 선율에 취하다 보면 스트레스 흠뻑

하루가 저물고 퇴근시간이 되면 뻘뻘한 지 하철에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다닌다. 반면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멈춘 듯 눈을 감고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에 취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악화'라고 하면 고가의 가격을 지불하고 고급문화를 향유한다고 생각해 거리감을 느낀다. 또한 '나와는 별개의 다른 세상'이라고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고급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올해부터 문화계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한 단계 문턱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서울광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평일 또는 주말저녁에 무료로 야외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공연장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기다보면 어느 새 스트레스를 흠뻑 털어버릴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

이다.

지난 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현악과 라이브가 흐르는 밤'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웅대 '수상음악'으로 공연의 서막을 열었다. 클래식을 어려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음악을 작곡하게 된 이유'와 '곡의 특징'을 설명해 줌으로써 클래식의 이해를 한 층 도왔다. 친숙한 곡으로 편성된 이 공연은 경쾌한 트럼펫 솔로가 광장을 가득 채우면 각각 다른 악기들의 연주가 이어져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기도 했다. 평소 공연장에서 공연을 볼 때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들의 무대는 고가의 가격 때문에 몇 층에서 무대를 내려다보며 멀리서나마 아쉬움을 달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야외공연은 사람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 연주자들의 악기를 마주한 진지함에서 묻어나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한다.

예술의 전당도 예외가 아니다. '예술의 전당'을 연상하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만 일단 가 보면 생각은 달라진다. 주말 저녁에 열리는 이 공연들은 오페라극장과 미술관 사이에 자리잡아 언제나 물거리가 많다. 공연이 열린 지난 5일은 크로스오버콘서트를 테마로 열린 클래식 재즈와 만나 기존의 클래식보다 비트있고 변주적인

곡으로 가득했다. 특히 공연 도중에 비가 내려 우비를 입고 비를 맞으며 들었던, 정교하지만 제멋대로 악기들이 어울려 흐트러지는 음색은 지친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무료로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예술의 전당 양우재(공연사업 부메니저)는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연에 친숙해져 매력력을 느끼게 된다면 자연히 공연의 가치를 높이 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매년마다 공연을 올린 후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만 모아 더욱 재미있고 알찬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갈라콘서트, 오페라, 발레, 재즈 앙상블과 더불어 대중음악적인 부분도 도입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곳에서는 야외공연이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뒤덮이는 경우가 없이 소리를 확실해 내보내고 있어 생생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이 날 지인을 통해 방문했다는 서찬영(직장인)은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공연이 열릴 일상 속에서 부담없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일상에 지

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가슴이 답답한 날, 비람부는 저녁에 조그만 위로해 건네는 음악과 함께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공공장소에서의 메이크업, 당신의 생각은?

지하철 속 변신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지하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입을 벌린 제 마스크를 울리고 있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이 당신은 아니었는지, 식당이나 강의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행동은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 돼버렸다.

이미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일상과 매너로 받아들여진지 오래다.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에게도 화장은 옷을 입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스런 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메이크업'이란 신조어도 탄생했다.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에티켓의 준말로 공공장소에서 메이크업 할 때 에티켓을 지키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지난 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명 '지하철 화장녀' 해프닝이 있었다. 지하철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던 한 여성에게 중년여성 한 명이 "화장을 밖에서 고치는 것은 술집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다."며

"화장은 다른 곳에서 하라"고 면박을 준 일이다. 이 해프닝은 공공장소에서 화장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쟁으로까지 번지며 한동안 이슈가 됐다.

입력(IPKN)화장품은 메이크업에 관한 에티켓을 지키자는 일명 '메이크업 10계명'을 발표하였으며,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일본의 모습도 있다. 일본 도쿄 지하철은 지난 5월, "지하철 내에서 메이크업을 삼가 달라"는 문구를 붙였다. 메이크업을 하는 일이 공공장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로 비추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는 다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서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공공장소에서의 메이크업에 대해 최한솔(대학생, 20세)씨는 "간단하게 립글로스 정도는 바른다. 화장을 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불

안해 보이기도 한다. 보기에 좋지 않지만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되도록 스스로 안했으면 좋겠다"며 의견을 전했다. 평소에도 자주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는 이상현(대학생, 25세)씨는 "등교길에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 아침에 뭘 하길래 저러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분가루가 날리고 특유의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이 불쾌하다. 보기에 좋지 않아 웬만하면 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이크업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들을,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단면이라 이해의 눈빛을 보내야 하는가. 매너가 아니며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문제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 것인가.

공유화 기자 gong0930@hansung.ac.kr

家でやろう。

Please do it at home.



▲ 지난 5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 메이크업을 자제하는 의미로 '화장용' 집에서 하자'는 문구가 지하철에 부착됐다.

Bon voyage~

여행객들에게 꿈꾸는 법을 알려주는 아기자기한 섬여행



하루만에 3개의 섬을 돌아볼 수 있을까?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시도·모도가 그런 곳이다. 여행자는 모도에도 많이 먹는 밥 아닌가. 새벽 5시 30분에 집을 나선다. 오전 7시 10분에 신도로 출항하는 첫 번째 카페리를 타기 위함이다. 일단 신도로 들어가면 이웃한 시도와 모도도 쉽사리 돌아볼 수 있다. 이들 3개의 섬은 방조제와 연육교로 이어져 하나의 섬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드나드는 비행기들의 이착륙 항로 가운데 하나이다. 시시때때로 항공기 엔진소리가 귓전에 내려앉는다. 국제선 여객기들이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한 세가 모도도 많이 먹는 밥 아닌가. 새벽 5시 30분에 집을 나선다. 오전 7시 10분에 신도로 출항하는 첫 번째 카페리를 타기 위함이다. 일단 신도로 들어가면 이웃한 시도와 모도도 쉽사리 돌아볼 수 있다. 이들 3개의 섬은 방조제와 연육교로 이어져 하나의 섬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3행정 섬 가운데 규모로 봐서 막내격인 모도의 배미꾸미해변에는 놀랄게도 멋진 조각공원이 들어서었다. 조각가 이일호씨의 작업장 구실을 하는 2층집 마당이 조각공원이다. '모도와 이일호'라고 새겨진 커다란 화강암이 기념탑처럼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면 그 주변으로는 사랑, 고통, 윤희 등을 형상화한 조각품들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잠시 이일호씨의 육성을 들어본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녔고 그래서 변변한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않았던 덕분에 나는 늘 혼자 꿈꾸고 꿈을 할 수 있었다. 나의 경우 가난은 정말 활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난했던 시절의 풍상력 덕분에 비교적 저렴로운 창조자로서 일생을 먹고 살 양식을 준 비록하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꿈을 꿀 줄 아는 자가 마침내 도당한 행복의 바닷가에서 여행자를 역시 크고 작은 조각 작품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그의 예술혼에 빨려든다"는 김준수 시인의 표현을 잠시 빌리겠다. 이 조각공원이 없었더라면 모도는 그저 하나의 쓸쓸한 섬에 지나지 않았을 터이나 한 조각가와 그의 인연으로 모도는 여행객들에게 꿈꾸는 법을 알려주는 섬이 되었다.

조각공원의 상공은 인천국제공항을

드나드는 비행기들의 이착륙 항로 가운데 하나이다. 시시때때로 항공기 엔진소리가 귓전에 내려앉는다. 국제선 여객기들이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한 세가 모도도 많이 먹는 밥 아닌가. 새벽 5시 30분에 집을 나선다. 오전 7시 10분에 신도로 출항하는 첫 번째 카페리를 타기 위함이다. 일단 신도로 들어가면 이웃한 시도와 모도도 쉽사리 돌아볼 수 있다. 이들 3개의 섬은 방조제와 연육교로 이어져 하나의 섬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모도에서 연육교를 건너 시도로 이동한다. 신도보다 면적이 작지만 북도면사무소가 이 섬에 있다. 면사무소 앞을 통하는 큰 길에서 '풀하우스'라는 안내판을 따라 북쪽의 수기해수욕장 해변으로 향한다. 중간에 염전 앞을 지나게 되는데 천일염을 팔고 있으며 오후시간에는 소금을 거둬들이는 장면도 구경할 수 있다. 시도에서 유일한 해수욕장 구실을 하는 수기해변은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KBS 수목드라마 '풀하우스'의 야외세트장이 바로 이 해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슬픈연가' 세트장도 수기해변 동편에 터를 잡았다.

북쪽으로 강화도의 동막해수욕장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수기해변의 서쪽 끄트머리는 드라마 속 주인공인 이영재(비)와 한지은(송혜교) 커플이 계약 결혼을 하고 함께 거주하던 풀하우스가 있는 곳이다. 몇 억원이려나,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풀하우스 세트장은 한 쪽 벽면을 넓은 통유리로 만들어 강화 앞바다를 품 안에 끌어들이었다. 여행객들은 저마다 디카와 폰카를 들고 풀하우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에 바쁘다.

(여행정보)
영종도 심목선착장 032-884-4155
배미꾸미조각공원 032-752-7215
유연태(여행작가 / '대한민국 여행사' 저자)

Talk/Talk! cinema '잠수종과 나비'

삶이 그대에게 절망을 안길지라도



유종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견뎌야 한다. 혼자 힘으로 허물을 벗는 고단한 시기를 거쳐야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한 남자가 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자. 그의 육체는 작동을 멈췄다. 고지 속에 갇힌 에벌레처럼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한 쪽 눈

을 깜빡이는 것 뿐. 나비가 될 기회를 포박당한 남자는 죽고 싶다. 하지만 이 남자는 자신에게 허락된 단 하나의 움직임에 꿈을 품는다. 그리고 그 꿈에 의지해, 눈꺼풀의 움직임만으로 13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완성한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남자는 그렇게 시간을 견뎌, 화려하게 비상한다. 이 남자의 이름은 장 도미니크 보비(마티외 아말릭). 엘트의 편지장이었던 이 남자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겠지만 실화다.

장애인들을 위한다며 나온 영화들에서 종종 발견되는 아이러니가 있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음악과 동정심을 부추기는 설정들로 장애인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오류가 그것이다. 줄리안 슈나벨 감독은 그러한 방법을 관객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음을 잘 아는 게 분명하다. 그는 흔하지 않은 드라마투르기의 관습들과

거리두기를 하며 그 어떤 연민도, 그 어떤 눈물도 그리고 그 어떤 슬픔도 강요하지 않는다. 이 영화가 한 남자의 '눈물 나게 슬픈 신포'가 아니라 '아름다운 동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잠수종과 나비'에서 주목할 또 하나는 1인칭 시점의 카메라 기법이다. 중반까지 카메라는 철저하게 주인공의 시선과 일치해 달린다. 관객은 보비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이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생경한 경험을 관객들에게 안긴다. 특히 보비의 오른쪽 눈이 폐매지는 순간 함께 임전되는 카메라는 그 폐매지의 감정을 극대화해 끌어 올린다. 페이크 다큐 '글로벌 버퍼드'가 전달했던 어지러움증과 두려움의 생생함에 견줄 정도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비극적인 인생을 바라보는 유연한 시선에 있다.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는 보비의 유머러스하고 솔직한 내레이션이 그 중 하나로, 눈꺼풀의 움직임으로 성숙의 곤란함을 호소하거나, 간호사들의 미모를 평가하는 모습은 유쾌한 웃음을 유발한다. '관객이 보비들'이 아니라, '보비가 관객을' 위로하는 상황. 이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 영화 곳곳에서 빛을 발한다. '죽고 싶다'로 시작된 보비의 메시지가 '고맙다'는 말로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영화는 우리에게 말한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사소한 순간이 모여 만들어내는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말한다.

정사유 (무비스트 기자)

사진이야기



볼같이 타오르는 열정, 좀 더 크고 화려하면 더 뜨거운 것일까요? 케냐 Ebenezer 아이들 마음 속에 어떤 꿈이 보이시나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너무나도 열망하는, 그래서 더욱 간절하고 소중한, 소박한 열정.

홍해민 (한국어문 3)